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마 16:24)

“할렐루야, 크신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오늘도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의 시간들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말씀과 성령을 통해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온 세상 가운데에서 드러나기를 소망하며 멕시코 선교지의 소식과 기도제목을 나눕니다.

1. 멕시코와 티후아나의 COVID-19 상황



멕시코와 국경도시들은 미국에서 지원받은 백신들을 통해 확진자 숫자가 줄어들었다는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저희가 사역중인 티후아나 시도 코로나 신호등이 녹색으로 변경 되어서 전체 성도의 70% 그리고 저녁 9시까지 대면 모임이 허락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교회의 모임들은 조심스럽게 진행을 하고 있으며, 미국 국경도 계속해서 관광비자 소유자의 육로 입국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2. 멕시코 티후아나 베엘 선교교회 사역

1) 어린이 날 축하 행사



어린이 주일을 맞아, 모임이 금지되어 교회에 올 수 없는 아이들을 위해 특별행사를 가졌습니다. 선생님들이 2대의 차량으로 나뉘어 광대 복장을 하고, 게임도구와 축하 선물을 싣고 가정마다 방문을 했습니다. 너무나 즐거워하는 아이들과 짧은 만남과 친교의 시간을 가졌으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서로를 축하하는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2) 어머니 주일 축하 예배 : 그동안 함께 예배하지 못한 아쉬움들을 안고 예배에 참석한



어머니들이 서로를 축하하고 격려하며 기쁨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정성스레 준비한 선물과 꽃 한송이를 받고 함께 모일 수 있음에 감사하며 속히 자유롭게 모일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며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도넛을 먹으며 친교의 시간을 가졌지만 그 어느때 보다도 감격스럽고 마음 벅찬 친교의 모임이 되었습니다.



3. 멕시코 선한목자신학교 및 훈련센터 대지구입 완료



코로나로 인한 재정적 부담감으로 사역을 미루거나 잠시 중단하려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역을 계획했으나, 주님께서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역사하셨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토지구입 계약 요청을 받게 되었고 대지구입을 위한 재정도 미리 준비해 주신

교회와 손길을 통해 완불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학생수 700명이 다니는 국민학교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어서 다양한 방과 후 사역들과 다용도로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진행중인 서류 수속들이 순조롭게 마무리 되도록, 그리고 건축을 위한 재정도 준비하신 동역자들을 통해 공급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해 주십시오.

4. 여름성경학교 교사 강습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7월 24일)



여름성경학교 교사강습회를 위한 찬양&울동 비디오 작업과 교사용 교재작업을 마치고 인쇄와 강의자 동영상 촬영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멀리 남미 페루와 콜롬비아에서부터, 멕시코는 남쪽 치아파스 주에서 까지 참가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을 통한 비 대면으로 교사강습회를 개최 하지만 충성된 일군들을 얻는 은혜로운 강습회가 되도록, 그리고 재정적 필요도 채워 주시도록 기도를 요청 드립니다.



5. 가디(Gadi) 전도사가 법대를 마치고 졸업식을 했습니다.

6년동안을 저희 가정에 함께 거하며 사역훈련을 받고 청소년 예배를 인도하며 대학과정을 다녔는데, 이제는 새롭게 변호사로 출발을 하기 위한 인턴과정의 첫 걸음을 시작합니다.

건강과 지혜와 충성된 일군의 사명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6. 기도제목

- 1: 벨엘 선교교회 루이스-아나 / 가디엘라 / 구메르신도-베띠 목회자들이 성령 충만함과 은혜 가운데 사역에 충성하게 하시고, 특별히 유산으로 연합해진 아나(Ana)사모의 건강 회복을 위해.
- 2: 선한목자 국제신학교 토지 이전 과정을 순탄하게 하시고, 건축을 위한 재정도 축복해 주시도록
- 3: 어린이 교사강습회 사역을 통해 헌신된 교사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어린이 전도사역에 큰 열매가 맺히는 은혜를 주시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동역자 된 티후아나 박영완, 정기영선교사 드림